

七月詩派의 流派적 範疇와 系譜性에 대한 小考*

鄭雨光**

〈目 次〉

1. 들어가면서—항전 의식과 두 갈래의 시인들
2. 才華 있는 三人의 시인—쟁커자, 텐젠, 아이칭
3. ‘七月詩派’의 形成과 成長, 衰亡
4. 결론을 대신하며—《하얀 꽃》과 ‘七月詩派’의 재조명

1. 들어가면서—항전 의식과 두 갈래의 시인들

中日戰爭(1937-1945)이 발발하기 전까지, 고전시에 대항해 신문화운동을 배경으로 질풍노도처럼 밀려왔던 白話新詩는 20년대의 다양한 실험과 진지한 모색, 30년대의 창의적인 배양과 화려한 성숙을 거쳐 이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중국 시단의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비록 시의 형식과 언어 면에서 아직도 고전시를 고집하는 학자풍의 시인들과 민요풍의 노래가 유행했던 향촌 지역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말이다. 주제와 이미지 면에서 정치·현실 참여적인 입장으로 시를 창작하기 시작한 좌익적인 경향의 시인들과 과거에는 정치·현실에 비참여적이었으나 이 시인들이 변모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두 가지 갈래로 이 시기의 시인들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치·현실 참여적인 시인들로 우선 좌익 문학을 모토로 1932년 상하이에서 발족한 中國詩歌會의 구성원인 무무텐穆木天(1900-1971), 양싸오楊騷(1900-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년도 교내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 wkjung@sookmyung.ac.kr

1957), 푸핑蒲風(1911-1942), 런쥘任鈞(1909-2003) 등을 들 수 있다.¹⁾ 이들은 시의 대중화를 추구하여 시대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정치 투쟁적인 주제를 강조하였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며 사물의 형상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시의 언어가 통속적이고 웅변조의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이 등장한 배경에는 반제국주의 정서 특히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말미암은 국민적 분노가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단에서는 '新月派' '現代派' '象徴派' 등 정치에 무관심한 시인들이 현실에서 벗어나唯美만을 추구하며 風花雪月에만 심취한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며 투쟁을 전개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中國詩歌會의 성립 이전에도 귀모뤄郭沫若(1892-1978)는 1928년 創造社 叢書의 하나로 《선봉前茅》이란 무산계급 운동에 영향을 받은 정치 서정시집을 출간했는데, "이 시집은 그의 시풍이 초기의 범신론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변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²⁾ 귀모뤄를 필두로 한 혁명문학 계열의 시가 창작은 1930년에 中國左翼作家聯盟이 성립하면서 중흥을 맞이하게 되었다. 《개척지拓荒者》, 《맹아萌芽》, 《북두北斗》 등의 월간 잡지들을 중심으로 투쟁의 호소를 주요 형식으로 하는 적지 않은 양의 혁명 시가들이 발표되었는데, 평나이 차오馮乃超(1901-1983), 장광츠蔣光慈(1901-1931), 첸싱춘錢杏邨(1900-1977), 후예핀胡也頻(1903-1931), 홍링페이洪靈菲(1901-1933), 인푸殷夫(1910-1931) 등은 무산계급의 형상을 격정적인 어조로 노래하였다.³⁾ 특히 인푸

1) 中國詩歌會는 1932년 9월 上海에서 左聯의 영도 하에 성립한 대중적인 시가 단체이다. 이 단체의 임무는 "시가 이론을 연구하고, 시가 작품을 제작하고, 시가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개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들의 詩歌觀은 두 가지 방향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인에게 "무산계급 의식형태"의 입장에 서서 현실을 파악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시의 의식 형태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시와 시인의 대중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上海의 총회를 제외하고도 北平, 廣州, 青島, 심지어 일본의 東京 등에도 분회를 두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龍泉明, 《中國新詩流變論》(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198-211쪽.

2) Eva Hung, "Qianmao前茅," in *A Selective Guide to Chinese Literature 1900-1949: The Poem*, ed. Lloyd Haft (Leiden: E.J. Brill, 1989), 116쪽.

3) 左聯은 성립과 동시에 國民黨 정부의 파괴와 진압을 받았는데, 左聯 조직의 공개적인 취소를 통지했으며 각종 법령과 조례를 제정하여 서점을 폐쇄하였고 서적과 간행물과 원고를 조사

의 시는 “적을 향한 무기이기도 하며 또한 고도의 예술적 결정체”로 舊社會에 대한 증오와 광명의 추구를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집 《어린이의 탑(孩兒塔)》은 루쉰魯迅(1881-1936)이 원고를 보존해서 1954년에 출판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서문에서 루쉰은 “별세계에 속한(屬於另一世界)”, “선구자에 대한 사랑의 커다란 것밭이자 박해자에 대한 증오의 금자탑(是對於前驅者的愛的大纛, 也是對於摧殘者的憎的丰碑)”이라고 추양하고 있다.⁴⁾ 따라서 귀모뒤에 의해 시작된 혁명시가의 창작은 인푸에 이르러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를 비롯한 주요 청년 시인들이 꽃다운 나이에 처형을 당함으로써 커다란 이정표를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정치·현실에 비참여적이었던 시인들로는 30년대 초에 ‘新月派’의 唯美主義에 영향을 받아 문단에 등단하여 이미지즘과 시대적 우울 심리를 중시하며 서구의 상징주의와 신감각주의를 중국적인 ‘現代主義(모더니즘)’로 變容시켜 受容했던 ‘現代派’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영수 격인 다이왕수戴望舒(1905-50)는 어쩌면 中日戰爭의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프랑스 유학에서 돌아와 1936년 10월 ‘現代主義’ 색채의 시 월간지 《신시新詩》를 동료들과 함께 창간했지만 1937년 7월 발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간하게 되었다. 上海가 포위 점령당하자 1938년 가족들과 홍콩으로 피난을 갔다. 홍콩에서 항일운동 활동으로 잠시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전쟁이 끝나자 上海로 돌아와 그의 마지막 시집인 25수로 구성된 《재난의 세월災難的歲月》을 1948년에 출판했다.⁵⁾ 이 시집에는 과거 그가 보여주었던 사적인 우울과 고뇌의 시들도 존재하지만, 정치·현실 참여적인 시들인 〈옥중 벽에 쓰다獄中題壁〉(1942년 4월 27일)와 〈내 부서진 손바닥으로我用殘損的手掌〉(1942년 7월 3일) 등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두 시는 노예처럼 음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여 유통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혁명 문예 공작자들을 체포 구금하였고 비밀리에 살육하기도 하였다. 소위 ‘左聯五烈士’인 리웨이썬李偉森(1901-1931), 러우스柔石(1902-1931), 후예핀, 인푸, 펑펑馮經(1907-1931) 등은 모두 꽃다운 나이에 1931년 2월 7日 上海의 龍華國民黨警備司令部에 의해 비밀리에 처형을 당하였다.

4) 謝冕, 《謝冕論詩歌》(南昌: 江西高校出版社, 2002), 77쪽.

5) 다이왕수의 생평과 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줄고, 〈동양과 서양의 다리 놓기—다이왕수의 삶과 시〉, 《中國語文論叢》, 제26집, 2004, 365-386쪽.

신념과 이상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되며, 항일을 위한 중국 민족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름답고 고적한 北京大學 '漢園' 시절의 벤즈린卞之琳(1910-2000)과 허치광何其芳(1912-1977)의 시들도 이 시기에 정치·현실 참여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쟁과 공산 치하의 삶으로의 전환이 벤즈린의 창작에 쉽게 반영되기 힘든 경향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는 1938-39년까지 延安을 방문하여 작가위문단과 함께 太行山의 항일 근거지를 위문했다. 그 위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20수로 구성된 시집 《위로의 편지慰勞信集》(1940년)를 써서 항일 전사들의 생활을 기록하고 찬양했다. 1938년 벤즈린과 함께 延安으로 갔던 허치광은 벼과는 달리 공산당에 가입했고 延安에 남아 당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했다. 1938-42년까지의 창작을 수록하고 있는 《밤 노래夜歌》(1945년)는 “평범하고도 구어체적인 언어로 반복을 즐겨 사용하며 혁명의 정신을 노래하는 시들”로 이전의 ‘預言’ 시기의 환상적인 감수성과 “개인주의 시에 대한 그의 이별을 말해 주는 것이다.”⁶⁾

중일전쟁 시기의 폭풍우는 ‘現代派’ 시인 중의 하나인 광징方敬(1914-1996)이 그 당시 아래와 같이 말한 것처럼 중국의 현대 문학 작가들에게 역사를 서사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을 제공했으며, 특히 현대시에 있어서는 서사시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시인들은 참여와 비참여의 구분이 없이 주제와 이미지 면에서 모두 거대한 역사적인 서사 공간에 녹아들었고, 그 결과 시가 “시대의 폭풍우”란 史詩性的 특질을 반영하게 되었다.

우리들의 이 위대한 민족혁명해방의 투쟁 속에서 개인의 슬픔과 즐거움에 대한 노래와 평상시 신변의 자질구레한 일에 대한 표현은 분명히 훨씬 전에 부정되었다. 일체의 불량한 경향과 감상적 성분은 이미 인정사정을 두지 않는 폭풍우에 의해 씻겨 내려갔다.(在我們這偉大民族革命解放斗爭里, 个人哀樂的謳歌与平常身邊瑣事的抒寫, 顯然早已被否定, 一切不良的傾向与感傷成分已爲无情的風暴冲洗開去).⁷⁾

6) 졸고, 《『預言』에 나타난 何其芳 시의 현대성 탐구》, 《中國語文論叢》, 제23집, 2002, 330쪽.

7) 王澤龍, 〈突進到生活的深處燃燒着生命的呼喊—論七月詩派的意象藝術〉, 《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28卷 第4期) (2006年7月), 53쪽에서 재인용.

中日戰爭의 발발로 기인하여 '抒情'의 축출과 '寫實'만이 유일한 예술의 활로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당연히 시의 내용과 형식은 반드시 다시 조정되고, 개조되고, 구성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시의 시대적 소명 의식과 사명감만의 강조는 시의 사회가치란 편향된 시각만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시가 街頭化되고 宣傳化되는 길을 재촉하게 만든다. 시가 한낱 항전을 위한 교조주의적인 구호로 전락하고 말 때 시에 고유한 심미가치는 홀시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거친 낭송과 공허한 절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七月詩派'⁸⁾는 후평胡風(1902-1985)이 주장한 시가 현실의 생활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되 시의 창작에 있어서는 객관 대상과 시인의 주관 정신이 서로 융합해야 한다는 미학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학 원칙은 자칫 홀시할 수 있는 시의 심미가치를 최소한으로나마 담보할 수 있는 성공적인 예술의 길로 특히 이미저리에 있어서의 주·객관이 융합된 그들의 탐색은 시대의 아픔을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글은 '七月詩派'의 流派의 범주와 계보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첫째, '七月詩派'가 탄생하기 전에 리얼리즘 기법의 시풍으로 중국 시단을 풍미했던 쟁커자臧克家(1905-2004), 텐젠 田間(1916-1985), 아이칭艾青(1910-1996) 등 세 시인의 창작 경향과 이들이

8) '七月詩派'는 사실상 '七月派'란 유파를 논할 때 시 장르를 구분해서 정의하는 말이다. '칠월파'는 소설의 장르에서도 루링路翎(1923-1994)과 추동평丘東平(1910-1941) 등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소설 장르에서의 '七月派'의 문학사적 공헌은 첫째, 오사운동 이래 루쉰魯迅을 위주로 하여 펼쳐왔던 국민성 비판의 이성 정신을 계승하여, 중국 사회를 개조하는데 있어 지식분자의 능동성과 '主觀戰鬥精神'을 강조한다. 따라서 20세기 중국 소설이 오사시대의 '啓蒙敘事'에서 40년대의 '紅色階級敘事'로 전환하는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본보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들은 당파적 관점을 문예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문학의 眞實性和 社會功利 목적을 강조한다. 이들은 시대 전환의 격변기 속에서 생존하려는 하고많은 개성들을 선명하게 그려내고자 애쓰면서 강렬한 예술성과 주관성을 드러낸다. 또한 시대적 민족 국가의 서사를 따르는 것을 주요한 원천으로 삼기에, 문학 작품 속에 웅대한 서사적 개념과 부호가 충만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七月派'를 '七月詩派'라고 통칭하는 주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① '七月詩派' 구성원 진용이 七月派小說에 비해 강대할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 이래 문단과 사회에서의 영향력 또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② '七月派'는 시가 소설에 비해서 사람들의 관념 속에 내재된 혁명문학 특징에 더욱 근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유에서 80년대 후평 사건이 누명을 벗으면서 '七月派'의 시가 소설보다 우선 문학사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汪洁, 〈七月派與中國現代革命文學思潮〉(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2005년4월), 89쪽 참조.

‘七月詩派’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七月詩派’의 형성, 성장, 쇠망의 역정을 후평이 주편한 잡지와 총서 및 동인들이 발간한 잡지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유파적 구심점과 구성원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80년대에 후평이 복권되면서 가장 먼저 출간된 시집인 《하얀 꽃白色花》(1981)과 ‘七月詩派’의 재조명 작업이 ‘七月詩派’에 내재된 유파적 범주와 계보성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분석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才華 있는 三人의 시인—짱커자, 텐젠, 아이칭

左聯과 中國詩歌會는 많은 시인들로 하여금 시대적 흐름과 정치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태도를 추동시켜 시가 시대적 정서를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하고 대중적으로 더욱 친밀하게 나아가게 하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시의 정치·선전적인 기능을 과도하게 중시하여 예술적인 규율을 홀시했다는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2·30년대의 각종 시가 유파의 변영과 함께 드러난 장·단점은 이제 대혼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전히 한 세대의 경험으로 남게 되는데, 이러한 기초 위에 짱커자, 텐젠, 아이칭이란 참신하고도 더욱 성숙되고 더욱 시대적 맥박과 부합되는 시인들이 출현하게 된다. 이들은 하루하루 악화되어가는 민족의 위기 속에 강인한 항쟁의식을 공통의 특징으로 하면서도 상이한 예술적 개성으로 각자의 才華를 드러내었다.⁹⁾

이 중량감 있는 세 명의 시인 중에 짱커자는 1933년 《낙인烙印》이란 시집을 출판함으로써 가장 먼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山東省 諸城縣 농촌 마을의 지주 가정에서 태어나 청소년기까지 농민의 생활을 직접 목격하며 그들의 고단한 삶에 깊은 연민을 가졌던 그가 시를 쓰게 된 이유는 원이뒤聞一多(1899-1946) 등 ‘新月派’의 영향이 컸다.¹⁰⁾ 그러나 《낙인》 속의 22수의 시는 ‘新月派’의 시풍과는 전

9) 謝冕, 《謝冕論詩歌》(南昌: 江西高校出版社, 2002), 78-80쪽.

10) 짱커자가 시인으로 등단한 배경에는 당시(1930-32년까지)에 山東省 靑島大學에서 초빙을

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질박하고 명쾌한 언어로 평범한 중국인들의 고난과 역경, 勤勞와 堅忍의 정신을 진실하고 정련된 예술 풍격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시구들을 음미하고 돌이켜 회상하게 함으로써 시인의 깊고 절박한 감정을 체득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낙인》 속의 대표작 〈낙인〉은 1932년에 쓴 작품으로 삶의 정체성에 대한 시인의 청춘기적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 당시 그는 일본군의 만주침략으로 동북지역의 피폐해진 민중들의 처참한 삶과 무력감을 직접 목도하였고, 이러한 연민을 바탕으로 쓴 시에서는 무엇보다 '삶'의 진지함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기에, 그에게 '삶'이란 바로 그의 마음에 '고통'의 낙인을 찍는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었다.

과거를 돌아볼까 몹시 두려워
 나는 "삶은 거짓"이라 교활하게 말하지
 고통은 내 마음에 낙인을 찍으며
 시시각각 이것이 생활임을 나에게 일깨워 주지
11)

다음해(1934년)에 출판된 《죄악의 검은 손罪惡的黑手》이란 시집은 《낙인》에 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참혹한 농촌현실을 그려내고 있는데, 《낙인》에서 보여주었던 다소간의 추상적이고 개념화된 표현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한 1936년에는 장시 《자화상自己的寫照》을 출판하여 1927년경의 폭력이나 압제의 역사를 서사

받아 문학원장 겸 국문과 주임을 했던 원이퇴의 격려와 추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33년 7월 그가 자비로 출판했던 《낙인》의 서문은 원이퇴가 썼는데, 그의 시풍을 당나라 시인 孟郊(751-814)에 비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쟁커자는 다음 해(1934년)에 쓴 글에서 '新月派'의 쉬즈모徐志摩(1896-1931)와 원이퇴의 시를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심지어 프랑스 시로부터 영향을 받은 다이왕수戴望舒(1905-1950)의 시를 혐오하기까지 했다. 사실 쟁커자의 시는 이 세 사람의 시풍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시에서는 남녀 간의 戀情이나 자연에 대한 것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외국 시인들의 영향도 찾아보기도 힘들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David Pollard, "Zui'e de heishou罪惡的黑手," in *A Selective Guide to Chinese Literature 1900-1949: The Poem*, ed. Lloyd Haft (Leiden: E.J. Brill, 1989), 263-264쪽 참조. 《낙인》의 서문을 위해서는 臧克家, 《烙印(中國現代詩歌名家名作原版庫)》(上海: 開明書店, 1947), 1-4쪽.
 11) 臧克家, 《烙印(中國現代詩歌名家名作原版庫)》(上海: 開明書店, 1947), 8쪽. 生怕回頭向過去望./ 我狡猾的說"人生是个謊"./ 痛苦在我心上打個印烙./ 刻刻警醒我這是在生活。//.....

시적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시집은 객관성과 설화성을 특징으로 하는 장중한 문체로 당시 농민들의 처절한 삶의 리얼리티를 이야기체 형식으로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 시인”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중국 현대 서사시체란 시 형식의 건설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적 성취는 중국 근·현대시사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¹²⁾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第五戰區抗敵青年軍團에 직접 참전하여 항전하는 군민의 처절한 모습을 노래하였지만 이전 작품에 비해서 정련됨과 리듬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는 延安에는 가지 않았지만, ‘七月詩派’의 형성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¹³⁾ 오히려 ‘七月詩派’의 동인들이 1955년 ‘호풍 비관운동’의 와중에 모진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957년 창간한 《시간詩刊》의 편집인이 되면서 문화대혁명 시절을 제외하고는 중국 시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텐젠은 安徽省 無爲縣에서 태어나 1933년 상하이의 光華大學 外文系에 입학했다. 1934년에 左聯에 가입했고 다음해인 1935년 처녀 시집인 《미명집未明集》을 출판했다. 1936년 동북 지역 농민들의 항일투쟁을 묘사한 短詩集인 《중국 목동가中國牧歌》와 紅軍의 長征을 배경으로 농민들이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장시로 쓴 《중국 농촌 이야기中國農村的故事》를 출판하였다. 이 두 시집이 國民黨政府의 금서 조치를 받고 체포 위기에 처하게 되자 1937년 봄 일본의 東京으로 피신을 갔다.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급거 상하이로 귀국하여 항전 시기를 썼고, 가을에 武漢으로 가 출세작인 《전투자에게給戰士者》를 썼다. 이 시는 그가 일본에서 체류하는 동안 러시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시자이자 혁명 시인인 마야콥스키(1893-1930)의 영향을 받아 중국인들의 항전 의지를 고무시키는 장시로, 특히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널리 애송되어 전해지고 있다.

12) 박남용은 쟁커자의 이러한 “서사지향적 시창작 방법”이 초기 시집인 《낙인》의 짧은 시들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시인 白石(1912-1996)의 시와 비교하여 재미있게 분석하고 있다. 박남용, 〈한중 근대시의 현실인식과 서사지향성 비교 연구-백석과 장극가의 시를 중심으로〉, 《中國研究》 제30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2), 121-125쪽.

13) 개인적인 의견으로 ‘七月詩派’의 만형 격인 쉰우디관鄒荻帆(1917-1995)의 시는 쟁커자의 스타일과 매우 흡사하다.

.....
전투에서
승리하든
죽든.....

〈七〉

詩篇 위
전사들의 무덤은
노예들의 국가에 비해
따뜻하고
눈부시리.¹⁴⁾

1938년에는 延安에 도착하여 ‘가두시街頭詩’ 운동을 공동으로 발기하였고 《그녀도 살인을 해야 해她也要殺人》란 시집을 출판하였다. 텐젠의 《전투자에게》와 《그녀도 살인을 해야 해》는 각각 후평이 편집한 ‘七月詩從’의 第1輯과 ‘七月文從’에 포함되어 있다. 《그녀도 살인을 해야 해》는 한 순박한 농촌 여인이 항일 투사로 바뀌는 과정을 진솔하게 노래하였다. 시를 항전의 중요한 무기로 삼은 이 시집을 평하며 원이되는 그에게 “북치는 시인播鼓詩人” “시대의 고수時代的鼓手”란 칭호를 주며 찬사를 보냈다.¹⁵⁾ ‘鼓点式’이라는 그의 형식은 전투 시에 북의 리듬을 암시하기 위해 가능한 적은 단어나 음절로 시의 행을 전개하다가 극적인 서사를 아우르기 위해서 행의 길이를 늘리는 수법으로, 북소리의 역동성을 저항의 생명력으로 바꾸고자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 당시에 쓴 〈만일 우리가 가서 싸우지 않는다면假如我們不去打仗〉을 보면 이러한 선명한 ‘街頭詩’의 성격과 고양되면서도 견실한 ‘鼓点式’의 생명력이 잘 나타나 있다.

만일 우리가 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적은 총검으로

14) 謝冕·錢理群 主編, 《百年中國文學經典》(第四卷)(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146-147 쪽. (중략) 在戰鬥里./ 勝利/ 或者死...../ 七/ 在詩篇上./ 戰士底墳場/ 會比奴隸底國家/ 要溫暖./ 要明亮。

15) 田間, 《給戰鬥者(中國現代詩歌名家名作原版庫)》(上海: 希望社, 1943), 1쪽.

우릴 죽일 것이다
 게다가 손가락으로 우리 뼈를 가리키며 말하지
 “봐라
 이게 노예들이다!”¹⁶⁾

위의 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지리를 중시하면서 민족의 처참한 광경을 직서하는 수법은 텐젠의 시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단어와 단어 사이의 호흡을 중시하여 전혀 꾸밈이 없는 저음의 진지한 ‘복의 울림’이란 리듬을 바탕으로 깔면서 시대적 아픔도 잘 전달하고 있다. 텐젠이 개발한 이러한 ‘鼓点式’의 기법은 후에 등장한 ‘七月詩派’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¹⁷⁾ 그는 1938년 8월 공산당에 가입한 후 晋察冀邊區에서 종군기자 생활과 文協 副主任 등의 일을 시작으로 1949년 이후 문화 관련 고위 관료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1951년 한국동란에 中國人民志願軍으로 참전하였다 귀국한 후에 1953년 다시 기자 신분으로 참전하여 판문점 담판을 기록한 산문집 《판문점기록板門店記事》이 있다. 1946년 출판된 장편 서사시인 《달구지꾼 이야기赶車傳》는 빈농인 스부란石不爛이 공산당의 영도 하에 고된 혁명투쟁의 역경을 극복하고 낙원을 찾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모두 7부로 구성된 이 장편 서사시는 1936년의 기근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제1부와 제7부를 제외한 나머지 5부는 각부마다 등장하는 중심인물로 제목을 주며 독립된 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각부의 서사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하기 위해 시인은 또 다른 서정 주인공을 빚어내어 각부의 시 속에서 읊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서사시의 서정효과를 강화시키고 있다. 시의 구법은 6언과 7언의 3박자를 채용하여 단순 명쾌하고 엄격하지만 대중적이고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16) 《詩刊》編輯部 選編, 《中華詩歌百年精華》(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144쪽. 假如我們不去打仗,/ 敵人用刺刀/ 殺死了我們,/ 還要用手指着我們骨頭說:/ “看,/ 這是奴隸!”

17)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장동천, 〈七月派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년 12월), 113-126쪽.

18)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Fritz Gruner, “Gan che zhuan赶車傳,” in *A Selective Guide to Chinese Literature 1900-1949: The Poem*, ed. Lloyd Haft (Leiden: E.J. Brill, 1989), 207-208쪽.

아이칭은 1933년 〈다옌허—나의 보모大堰河—我的保姆〉란 시를 발표함으로써 일약 유명세를 얻은 시인이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上海를 떠나 피난 갔던 武漢에서 명시인 〈중국 땅에 눈이 내리고雪落在中國的土地上〉를 써서 당시 피난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 그 후 山西, 湖南, 廣西, 重慶 등지를 떠돌다 1941년 延安으로 가기 전까지 공통구 바깥에서 가장 민족적이고 가장 저항적으로 시대의 아픔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리더였다. 그의 창작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의 시들이 《북방北方》(1939), 《태양에게向太陽》(1940), 《광야曠野》(1941), 《횃불火把》(1941), 《여명의 통지黎明的通知》(1943) 등의 중요한 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桂林에서 쓴 시집 《북방》은 전쟁으로 인한 대지의 참혹한 실상과 궁핍한 농민들의 처참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사백여 행의 장시인 《태양에게》는 1938년 武昌에서의 항전을 낙관적 정조로 노래하고 있다. 이 두 시집 모두 후평이 편집한 《七月詩叢》第一輯에 포함되어 있다. 《여명의 통지》는 1939-1940년까지 그가 떠돌던 도시와 농촌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추적하고 있는 다양한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1941년 3월 저우언라이周恩來(1898-1976)의 부탁을 받고 延安에 도착한 그는 1942년에 혹독한 당의 비판을 감수하게 되었다.¹⁹⁾ 비판의 핵심은 지식분자 시인이었던 아이칭에게 자신과 工農 간의 거리를 좁혀 그들의 사상개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당이 중시하는 “시대적 대합창의 선율에 호응하고 민족의 부흥과 독립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으며 “당의 영도자에 대한 충만한 감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고통의 예술관과 세계관으로 개조되는 길에 참여해야만 했다.”²⁰⁾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의 창작은 延安 시기부터 거칠고 조잡한 경향을 가진다.

19) McDougall, Bonnie S. and Louie, Kam, *The Literature of China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273쪽.

20) 줄고, 〈艾青 후기 시의 정치 서정시적 특질과 강점 연구〉, 《中國文化研究》(2010.12), 제17집, 449-450쪽 참조. 이 글에서 아이칭의 1949년 전까지의 생평과 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글의 목적상 생략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중일전쟁 시기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더 자세한 설명은 위해서는 줄고, 〈艾青 전기 시의 심미 특색 연구〉, 《中國語文論叢》, 제47집, 2010, 423-444쪽.

아이칭의 시가 ‘七月詩派’에게 준 영향이 심대하다는 사실은 《하얀 꽃白色花》序文에 쓰인 루위안緣原(1922-2009)의 회고인 “시종일관 흔쾌히 시인합니다, 그들(七月詩人) 대다수가 아이칭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했다는 것을”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²¹⁾ 그러나 ‘七月詩派’가 아이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모방이나 답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가 지닌 이미지리의 아름다움과 산문미를 포괄하는 독창적인 시의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난 속의 민족정신과 아이칭 개인의 정감의 융합을 통하여 질박하고 자연스럽고 명랑한 목소리로 시대정신을 구현한 그의 시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3. ‘七月詩派’의 形成과 成長, 衰亡

‘七月詩派’의 활동 기간은 中日戰爭과 國共內戰 시기를 아우르고 있다. 후평이 主編한 《칠월七月》(1937년 9월 창간-1941년 9월 정간)이란 잡지로부터 그 이름을 얻었지만,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그 조직이 비교적 엄밀한 문학 단체는 아니었다. 사실상 그 구성원들은 國統區와 解放區 심지어 淪陷區까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고 직업도 동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²²⁾ ‘七月詩派’의 전기가 《칠월》과 《시간지詩壘地》²³⁾란 잡지를 중

21) 緣原 牛漢 編, 《白色花》(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2쪽. 始終欣然承認, 他們大多數人是在艾青的影響下成長起來的。

22) 郭小聰, 〈論七月詩派〉, 《國際關係學院學報》, 第3期, 1994, 42쪽.

23) ‘신사군사건(皖南事變)’ 이후 국민당 내부에서 反共의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 國統區에서는 백색 테러로 인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重慶에서도 진보 간행물 대다수가 정간을 맞이하게 되며 《七月》도 예외가 아니었다. 《詩壘地》는 《七月》이 정간된 후에 당시 重慶으로 이주해 있던 廈門大學을 중심으로 쩌우디관鄒荻帆(1917-1995), 지광冀訪(1918-), 쟁취曾卓(1922-2002), 루위안緣原(1922-2009), 야오번姚奔(1919-1993) 등 청년 시인들이 결집하여 만든 《詩壘地》從刊과 《詩壘地》副刊을 말한다. 《詩壘地》副刊은 重慶의 모교로 초빙되어 와서 1939년 1월 17일 《國民公報》의 문학 副刊격인 《文群》을 창간한 장진이章靳以(1909-1959)가 이 청년들의 文才를 높이 사서 매일 한번씩 《文群》의 副刊 형식으로 출간하게 된 시전문지를 일컫는다. 《詩壘地》副刊은 1942년 2월 2일 창간하여 1943년 5월 29일 종간할 때까지 도합 25기를 출간하였다. 또한 《詩壘地》는 국민당 정부의 엄격한 검열 제도에도 불구하고 《詩壘地》從刊을 내기로 결정하여 《여명의 숲黎明的林子》(1941년 1월 5일),

심으로 기성 작가인 아이칭, 텐젠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과적 색채가 얽은 시기라고 본다면, 후기는 《희망希望》(1945년 12월 후평이 창간-1946년 10월 정간), 《호흡呼吸》(1946년 11월 아룽阿壘(1907-1967)과 팡란方然(1919-1966)이 成都에서 창간하여 1947년 3월 정간까지 도합 3期), 《진흙泥土》(1947년 4월 北京大學에 재학 중이던 주구화이朱谷怀(1922-1992) 등이 편집하여 1948년 11월 정간까지 도합 7期), 《개미螞蟻小集》[어우양欸歐陽庄(?) 등이 南京, 上海 등지에서 1948년3월-1949년7월까지 도합 9輯]란 잡지 등에 투고를 하면서 그들만의 색깔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칠월》에 작품을 발표한 시인이 모두 39인이고, 후에 《희망》에 시를 발표한 신인이 모두 14인인데, 여기에다 《七月詩叢》, 《시간지》, 《호흡》, 《개미》 등에 작품을 발표한 신인까지 합치면 모두 120인에서 130인까지로 확장될 수 있다.²⁴⁾ 물론 이들 전부를 ‘七月詩派’의 동인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분명한 사실은 후평의 문예적인 열정이 ‘七月詩派’ 신인들을 자라나게 했고 이 잡지들이 신인들의 발굴과 육성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원, 대학생, 고등학생, 전업 시인, 사무원, 신문·잡지의 편집인, 지하 공작원, 현역군인 등” 아주 다양했다.²⁵⁾ 따라서 출신·직장·연령·사회적

《죽쇄와 검柳鎖与劍》(1942년3월1일), 《봄의 약동春的躍動》(1942년5월), 《고원에 흐르는 소리高原流響》(1943년3월1일), 《쇠구슬滾珠集》(1946년5월1일), 《하얀 꽃白色花》(1944년 末) 등 총 6輯을 출간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李本東, 〈重慶夏且大學作家群的文學活動概述〉(西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1년 4월), 4-9쪽. 《詩墾地》의 詩史上的 중요한 역할과 의의는 ① 시전문지로서 ‘七月詩派’의 전기를 대표하는 《七月》잡지와 후기를 대표하는 《希望》잡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② 《詩墾地》從刊과 副刊이 출간될 당시 홍콩에 있던 후평(1941년 5월 9일 후평의 전 가족은 이년 반 동안 머물렀던 重慶을 떠나 홍콩으로 가서 반년을 살다가 1942년 초 홍콩을 떠나 3월 桂林에 도착했다)과 延安에 있던 쩌우디판이 어떻게 《詩墾地》副刊에 작품을 투고하고 지지하는가를 살펴보면 이들이 공유하고자 했던 ‘七月詩派’의 유과적 정체성과 향후 후평의 문예적 입장을 예견해 볼 수 있다. 특히 《七月》에 투고를 했던 아이칭이나 텐젠 같은 순수하게 ‘七月詩派’로 보기 어려운 시인들은 《詩墾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후평의 중일전쟁 후기 시기 활동에 대해서는 周燕芬, 〈抗戰后期胡風的出版活動〉, 《天水師範學院學報》第31卷, 第6期, 2011, 39-45쪽.

24) 游友基, 〈略論七月詩派形成, 發展, 消亡的歷程〉, 《昭烏達蒙族師專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第15卷, 第3期, 1994.9), 45쪽.

25) 劉揚烈, 《詩神 煉獄 白色花—七月詩派論稿》(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1), 22쪽.

경력·개성·기호 등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지 않았지만 항전과 민족해방이라는 기치 아래 구심점을 찾아 모여들었다. 이러한 공통의 인식은 하나의 문학 유포를 위한 분투적인 목표와 이상을 낳을 수 있었다.

또한 후평은 자신이 편집인이 되어 ‘七月詩從’이라는 개인별 시집을 시리즈로 출간함으로써 ‘七月詩派’의 유포적 성격을 공고히 다지려고 의도한 것 같다. 후평은 1938년 上海의 위홍모俞鴻模(1908-1968)가 만든 海燕書店과 합작하여 ‘七月’ 동인들의 叢書를 편집하여 출간하였는데, 우선 《七月詩叢》으로 아이칭의 《태양을 향하여向太陽》, 후평 《조국을 위해 노래하리爲祖國而歌》, 장용庄涌(?)의 《포위망 돌과 명령突圍令》이란 3권의 시집을 출판했다.²⁶⁾ 1942년에서 1943년까지 桂林에 1년간 체류하면서 후평은 南天出版社와 合作으로 《七月詩叢》을 연속하여 출간하였다. 이전에 출판했던 아이칭의 《태양을 향하여》, 후평 《조국을 위해 노래하리》를 再版하였고 지팡의 《약동하는 밤躍動的夜》, 루리魯藜(1914-1999)의 《깨어 있을 동안醒來的時候》, 아룅의 《현 없는 거문고无弦琴》, 텐젠의 《전투자에게給戰士者》, 텐란天藍(1912-1984)의 《예언預言》, 쑤뎨孫鈿(1917-

26) 周燕芬, 〈抗戰后期胡風的出版活動〉, 《天水師範學院學報》(2011年11月) (第31卷, 第6期), 44 쪽 참조. 이 글에서는 후평이 편집 출판한 《七月詩叢》과 《七月文叢》을 모두 네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38년 上海의 海燕書店과 합작하여 위에서 말한 3권의 《七月詩叢》과 5권의 《七月文叢》을 출간 했던 시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41년부터 1946년까지 후평이 桂林과 重慶에서 활동했던 때로 《七月詩叢》第一輯으로 13권과 《七月文叢》(‘七月新從’을 포함하는 의미로)으로 후평의 평론집인 《民族戰爭與文藝性格》, 잡문집인 《棘源草》, 번역집인 《人與文學》과 路翎의 《飢餓的郭素娥》, 《青春的祝福》 등과 丘東平的《東平短篇小說集》 등등 출판 규모가 가장 방대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가장 컸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1946년 上海로 돌아온 후부터 건국 전까지로 후평은 다시 海燕書店과 합작함과 동시에 자신의 希望出版社에 의지하여 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일련의 ‘詩叢’과 ‘文叢’을 再版하기도 했고 新版하기도 하여 《七月文叢》의 12권이 출간되었다. 그 중 시집은 4권으로 루위안의 《又是一個起點》, 텐젠의 《她也要殺人》, 루리의 《鍛煉》, 장용의 《突圍令》이었다. 그 중 ‘文叢’의 수량이 더욱 많아서 아룅의 《第一擊》, 루링의 《求愛》, 양리楊力(賈植芳, 1915-2008)의 《人生賦》, 진튀핀駝(1910-1988)의 《結合》, 쿵궈孔厥(1914-1966)의 《受苦人》, 후평의 《論民族形式問題》와 《逆流的日子》, 수우슈핑舒芙(1922-2009)의 《挂劍集》 등이다. 후평은 야심차게 新書 출판을 목적으로 《七月新叢》를 希望社와 계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과거에 출간한 4권의 책을 再版하는 것으로 그친다. 네 번째 단계는 후평이 1951년 上海의 泥土社와 함께 《七月詩叢》第二輯으로 도합 6권의 詩集을 출판한 것을 말하는데, 원래는 1948년 편집을 시작할 때는 모두 10권을 내기로 했으나 결국 6권으로 그쳤다. 위의 글에서는 주제의 성격상 시에 관련된 부분만 서술하고자 한다.

2011)의 《깃발旗》, 루위안의 《동화童話》, 쩌우디판의 《의지의 노름꾼意志的賭徒》 등을 새롭게 출판하였다. 1943년 3월 후평은 桂林을 떠나 重慶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桂林의 南天出版社와는 계속해서 함께 일을 했는데, 연말에 출판사가 보내온 새로운 시집의 원고인 아이칭의 《북방北方》과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편집한 신인들의 공동 시집인 《나는 처음 온 사람我是初來者》을 《七月詩叢》에 포함시켰다. 또한 얼마 안 있어 당시 국민당 정부에 의해 금서가 된 두구杜谷(1920-)의 《흙의 꿈泥土的夢》을 포함시켜 《七月詩叢》第一輯을 도합 13권으로 출판하려 하였으나 결국 《흙의 꿈》은 출판하지 못하고 사실상 12권을 출판함에 그쳤다.²⁷⁾ 1946년 上海로 돌아와 48년까지 《七月文叢》을 출판했는데 그 안에서 루위안의 《또한 하나의 기점이다又是一个起点》, 텐젠의 《그녀도 살인을 해야 해》, 루리의 《단련鍛煉》, 장융의 《포위망 돌과 명령》(再版)이란 4권의 시집을 발견할 수 있다. 건국 후 1951년 후평은 上海의 泥土社와 함께 《七月詩叢》第二輯으로 루위안의 《집합集合》, 뉴한牛漢(1923-)의 《천연색 생활彩色的生活》, 지팡의 《날개가 있는有翅膀的》, 화테화鐵(1925-?)의 《사나운 뇌우는 도도하고 기세 드높게 온다暴雷雨岸然轟轟而至》, 쑤텐의 《망원경望遠鏡》, 허징즈賀敬之(1924-)의 《결코 겨울은 없다並沒有冬天》란 총 6권의 詩集을 출판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七月詩派’의 형성과 성장은 유파적 범주를 규정할 때 하나의 중요한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인적 구성원의 방대함뿐만 아니라 그들이 창작 활동을 했던 시공간의 방대함에도 기인하고 있다. ‘文學流派’의 개념을 “일정한 역사 시기에 문학 견해와 예술 풍격이 유사한 작가들이 자각 혹은 비자각적으로 결합”²⁸⁾한 무리를 일컫는 것으로 정의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들 모두가 유사한 “문학 견해”와 “예술 풍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상당한 의문점이 일어난다. 이들 구성원 중에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시인으로는 역시 아이칭, 텐젠, 허징즈 등을 들 수 있다.²⁹⁾ 아이칭과 텐젠은 《칠월》 잡지에다 시를 투고하였고 《七月詩叢》

27) 위의 책, 42쪽

28) 《辭海》“在一定歷史時期里，文學見解和藝術風格近似的作家自覺不自覺的結合。”周良沛 選編，《七月詩選》(成都：四川人民出版社，1984)，6쪽 재인용.

29) 劉揚烈은 ‘七月詩派에 포함시키는 것에 학계의 논쟁이 있는 네 명의 저명한 시인들로 아이칭, 텐젠, 허징즈, 쩌우디판 등을 들면서, 實事求是적인 歷史唯物主義적 태도를 견지한다면

第一輯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전부터 문단에 데뷔하여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또한 延安행 이후로는 시풍에 있어서 '七月詩派'와 일정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1955년의 '胡風反黨集團' 사건에서도 비판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七月詩派'란 신세대 시인 유파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두 거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허징즈의 경우는 《七月詩叢》第二輯에 《결코 겨울은 없다》란 그의 초기 시집이 등장하지만 1940년 延安행 이후에 延安文學의 정신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1945년 불세출의 歌劇《백모녀白毛女》를 공동으로 만든 작가이기에 '七月詩派'의 범주로 넣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七月詩派'의 범주에 들어가는 시인들 중 延安행을 선택했지만 후에 '胡風反黨集團' 사건과 연루되어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시인들로는 루리, 후정胡征(1917-2007), 쉬팡徐放(1921-2011), 텐란 등을 들 수 있다.

'七月詩派'의 범주의 규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또 다른 이유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부터 싹트기 시작한 '七月詩派'의 영수격인 후평에 대한 "반혁명·반당 분자"라는 비판에도 기인하고 있다. 1950년 초반부터 문예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헤게모니 쟁탈전에 기인하여, 延安의 문예노선과는 달리 독자적인 문예노선을 걸어왔던 후평에 대해 저우양周揚(1908-1989) 등 당권파 문인들은 '主觀唯心主義'라는 비판을 하였고, 결국 '七月詩派'의 상당수 구성원들이 1955년 5월 '胡風反黨集團' 사건의 외증에 함께 비판대상으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³⁰⁾ 따라서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유파 구성원들의 창작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1980년 9월 후평이 복권되면서 '七月詩派'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가 중국 문예계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며 이 네 명을 모두 '七月詩派'에 포함시킨다. 아마도 아이칭과 텐젠에 관한 그의 주장은 두 시인과 후평과 관계 그리고 '七月詩派' 동인들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등을 강조한 것이며, 허징즈에 관한 그의 주장은 《七月詩叢》第二輯에 포함된 그의 시집에 근거한다. 劉揚烈, 《詩神 煉獄 白色花—七月詩派論稿》(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1), 12-15쪽.

30)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장동천, 〈七月派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년 12월), 15-16쪽.

4. 결론을 대신하며—《하얀 꽃》과 ‘七月詩派’의 재조명

이십여 년의 망각과 치욕의 세월을 보낸 후, 1981년 ‘七月詩派’의 동인 중에 두 시인인 루위안과 뉴한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시가 선집인 《하얀 꽃》을 主編하여 人民文學出版社에서 출간한다. 이 시집에 수록된 시인들은 아룽, 루리, 쑨뎨, 팡란, 지팡, 핑옌자오彭燕郊(1920-2008), 정쓰鄭思(1917-1955), 쩡취, 루위안, 뉴한 등 20인이다. 이 20인의 시인을 ‘七月詩派’의 전체 구성원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왜냐하면 루위안이 말했듯이 이 시집은 “명예를 회복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일반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개 유파의 선집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這本合集帶有平反的性質,并非如一般讀者所理解是一個流派的選集).”³¹⁾ 사실상 이 시집은 후평 사건에 연루되어 심한 박해를 받았던 시인들에 대한 合集이라고 할 수 있다. 후평의 복권과 함께 시인 20인의 작품으로 꾸며진 《하얀 꽃》의 출간은 과거의 ‘七月詩派’에 대한 때늦은 감이 있는 애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하얀 꽃’이란 제목은 루위안이 시집 속의 아룽의 〈무제〉 시의 시구를 인용한 것이다.

이슬을 밟지 마라—
왜냐하면 옛사람이 밤새 울었으니……

아, 나의 사람아, 나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해
白魚 촛불 빛 속에 너를 위해 구약의 〈아가서〉를 읽어주던 일을

하지만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발가벗은 채로 너의 몸뚱이 곁에 다가가 하나님
을 빌 수 있어……

하지만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셈하지는 마라
광년을 쓰지 말고, 인력을 쓰고, 서로의 빛을 썬라

31) 綠原, 《葱与蜜》(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5), 65쪽.

한 가지 하얀 꽃으로 피어나리—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선고를 바라기에, 우리가 무죄라는, 그런 후에
 우리는 시들어 떨어지니³²⁾

1944년에 쓴 위의 시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남기고 사별한 아내 장취張瑞를 회상하기 위한 작품이다. 아롱의 시 속에서 40여 편의 진솔하고도 감동적인 애정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절대 대다수가 아내에게 받치는 노래로 애완의 정조 속에서 비통하고 분한 마음을 억누름보다는 격정으로, 탄식보다는 분함으로 표현하였다.³³⁾ 시인의 내면 독백을 엿볼 수 있는 이 시에서 시인은 새벽에 산책을 나갔다가 풀잎 위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보게 된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절망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시인에게 이 이슬방울은 밤새 울고 있던 아내의 눈물방울로 다가왔을 것이다. 2연에서는 과거 아내와 행복했던 시간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에 독자들을 한없이 우울하고 슬프게 만든다. 《구약성경》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이 시에서는 그와 아내 사이의 사랑도 그와 같았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시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성향도 엿볼 수 있다. 3연에서 나는 죄가 없다는 시인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나타나고 그러하기에 감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종교적 의미에서 둘 사이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인정이 중요한 것이 지 무고하게 죽은 아내에 대한 애통함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격분을 억누르지 못해 시인은 4연에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셈하지는 마라”라고 분노한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절대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원형상징의 시어로서, 사람들이 그들 둘 사이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사이의 거리를 셈하는 것 자

32) 劉靜, 〈一股不平氣 開作白色花-阿壘《無題》賞析〉, 《閱讀與寫作》(1996年5月), 9쪽에서 재인용. 不要路着露水—/ 因為有過人夜哭。……// 哦, 我底人啊, 我記得極清楚。/ 在白魚燭光里為你讀過《雅歌》。// 但是不要這樣為我禱告, 不要!/ 我無罪, 我會赤裸着你這身體去見上帝。……// 但是不要計算星和星間的空間吧。/ 不要用光年, 用萬有引力, 用相互的光。// 要開作一枝白色花—/ 因為我要這樣宣告, 我們無罪, 然後我們凋謝。

33) 위의 책, 9쪽.

체도 무의미할뿐더러 물리학의 보편적 척도인 광년으로써는 그 거리를 재는 일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은 비록 두 개의 다른 세상(별)에 있더라도 만유인력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고 서로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법이다. 마지막 연에서 시인의 이러한 마음과 아내의 불굴의 영혼은 “시들어 떨어지”기 전에 “한 가지 하얀 꽃으로 피어나”야만 한다고 노래한다. 이것은 한 생명의 죽음을 담보로 그들의 애정이 세상에서 가장 지조 있고 가장 순결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으로 매우 장엄하고도 강개한 느낌을 전달한다. 특히 “한 송이(一朵)”가 아닌 “한 가지(一支)” “하얀 꽃”은 이 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분노의 칼날과 견인불굴의 정신을 잘 이미지화하고 있다. 강렬한 주관적 색채와 인간에 고유한 원시적 생명력, 시대적 동요와 좌절 속에 피어난 청춘의 부르짖음과 삶에 대한 참신한 감수성 등을 ‘七月詩派’의 풍격으로 본다면 이 시에서 이러한 풍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 30여년의 세월 동안 견인불굴하다 이제야 복권되어 20인의 시집을 발간하는 회한과 분노 등이 점철되어 루위안은 이 시구를 그들 시집의 제목으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얀 꽃》의 출판 이후, 1984년에는 저우량페이周良沛가 選編한 《七月詩選》이 成都의 四川人民出版社에서 나오고 1986년에는 우쯔민吳子敏이 選編한 《七月》·《希望》作品選이 上·下卷으로 北京의 人民文學出版社에서 나와서 ‘七月詩派’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됨과 동시에 연구가 가일층 촉진되었다. 이와 동시에 ‘七月詩派’ 동인들에 대한 개별 選集·詩集·詩論集 등이 연속 출판됨으로써 연구의 확장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학계에서는 1982년 9월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第3期에 실린 토론회 기록에서 ‘七月詩派’에 대한 재조명을 촉구하였고, 1988년 7월에는 드디어 中國社會科學院의 文學研究所와 《文學評論》의 편집부가 함께 “후평 문예사상에 관한 재성찰(關於胡風文藝思想的反思)”이라는 座談會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³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七月詩派’는 항전과 민족해방이라는 특정한 역사시기

34) 劉揚烈, 《詩神 煉獄 白色花—七月詩派論稿》(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1), 24쪽.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장동천, 〈七月派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년 12월), 5-10쪽.

를 배경으로 형성되고 성장한 시가 유파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당면한 조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현실의 문제점을 공통으로 인식하여 시가의 대중화와 리얼리즘을 시대의思潮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左聯'과 '延安文學'의 리얼리즘 정신이 교조주의로 흘러 문예의 공감대를 상실하려 할 때에, 준엄하게 일어나 처절하게 박투하는 개성적인 예술혼을 보여줌으로써 시대와 예술의 완미한 결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적 잣대보다는 정치적 잣대에 의해 50년대부터 비판과 억압을 받았고, '후평사건'으로 인하여 '七月詩派'의 존재성은 부인과 망각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거 이단이었던 '七月詩派'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시에 고유한 선명한 주체의 서정성은 정치에 강제되거나 굴복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參考文獻〉

- Hsu, Kai-yu, ed. and trans. *Twentieth Century Chinese Poetry: An Antholog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 Haft, Lloyd, ed. *A Selective Guide to Chinese Literature 1900-1949: The Poem*. Leiden: E.J. Brill, 1989.
- Yeh, Michelle, ed. and trans. *Anthology of Modern Chinese Poet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McDougall, Bonnie S. and Louie, Kam. *The Literature of China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 田間, 《給戰鬥者(中國現代詩歌名家名作原版庫)》, 上海: 希望社, 1943.
- 臧克家, 《烙印(中國現代詩歌名家名作原版庫)》, 上海: 開明書店, 1947.
- 綠原 牛漢 編, 《白色花》,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 周良沛 選編, 《七月詩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4.
- 綠原 著, 《葱与蜜》,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5.
- 吳子敏 選編, 《〈七月〉·〈希望〉作品選》(上·下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6.
- 劉揚烈 著, 《詩神 煉獄 白色花—七月詩派論稿》, 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1.
- 謝冕·錢理群 主編, 《百年中國文學經典》(第四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 龍泉明 著, 《中國新詩流變論》,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 謝冕 著, 《謝冕論詩歌》, 南昌: 江西高校出版社, 2002。
- 《詩刊》編輯部 選編, 《中華詩歌百年精華》,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 洪子誠 劉登翰 著, 《中國當代新詩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郭小聰, 〈論七月詩派〉, 《國際關係學院學報》, 第3期, 1994。
- 游友基, 〈略論七月詩派形成, 發展, 消亡的歷程〉, 《昭烏達蒙族師專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第15卷 第3期, 1994。
- 劉靜, 〈一股不平氣 開作白色花-阿壘《無題》賞析〉, 《閱讀與寫作》, 1996。
- 李本東, 〈重慶夏且大學作家群的文學活動概述〉, 西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1。
- 周燕芬, 〈執守·反撥·超越—七月派史論〉, 華中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2。
- 汪涪, 〈七月派與中國現代革命文學思潮〉,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王澤龍, 〈突進到生活的深處燃燒着生命的呼喊—論七月詩派的意象藝術〉, 《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28卷 第4期, 2006。
- 周燕芬, 〈抗戰後期胡風的出版活動〉, 《天水師範學院學報》, 第31卷 第6期, 2011。
- 장동진, 〈七月派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박남용, 〈한중 근대시의 현실인식과 서사지향성 비교 연구-백석과 장극가의 시를 중심으로〉, 《中國研究》,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제30권, 2002.
- 정우광, 〈《預言》에 나타난 何其芳 詩의 현대성 탐구〉, 《中國語文論叢》,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제23집, 2002.
- 정우광, 〈동양과 서양의 다리 놓기-다이왕수의 삶과 시〉, 《中國語文論叢》,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제26집, 2004.
- 김소현, 〈1950년대 중국 정치와 시〉, 《中國語文論叢》,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제30집, 2006.
- 정우광, 〈艾青 전기 시의 심미 특색 연구〉, 《中國語文論叢》,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제47집, 2010.
- 정우광, 〈艾青 후기 시의 정치 서정시적 특질과 강점 연구〉, 《中國文化研究》, 서울: 중국문화연구학회, 제17집, 201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July Poetry Society's category, especially focusing on its poetic genealogical tree during the War against Japan and the Civil War. The first step in mobilizing poets to support

the anti-Japanese literary trend was taken in September 1932 with the poets of the Chinese Poetry Association 中国诗歌会. The sympathy on Chinese sufferings let many Chinese poets advocate a proletarian-oriented poetry before the advent of the Chinese Poetry Association. But the poets of the League of Left-wing were significantly full of adolescent fantasies for the proletarian revolution. As a result of this, their poetic language and imagery remain curiously abstract, formulaic, and propagandistic. These poems are failure to stir the feelings of others, because they are vacant in content and low-grade in style.

Even though the poets of the July Poetry Society received the influence of both poets of the League of Left-wing and the Chinese Poetry Association, their poems were sincere and good enough to show personal point of view with portraying the simple people's living hardship under the years of the Anti-Japanese Resistance (1937-1945). Part Two examines three major poets, such as Zang Kejia 臧克家(1905-2004), Tian Jian 田间(1916-1985), and Ai Qing 艾青(1910-1996) and their poetic influence on the birth of the July Poetry Society. But these three poets are excluded from the members of the July Poetry Society in this research. Part Three analyzes the poetry series and magazines published by the July Poetry Society, especially focusing on Hu Feng 胡风(1902-1985). In Part Four, the re-illumination of the poets of the July Poetry Society in the early 1980s was the result of long and painstaking adventure that Chinese poets had been finding a high ideal of being the model poetry of realism, quote unquote, "the convergence of poet's personal feelings and national spirit."

关键词: 七月诗派, 七月派, 七月, 希望, 诗垦地, 胡风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0일에 접수되어 2012년 1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